

“부담없이 집관하세요”... 유통업계, 월드컵 마케팅 ‘후끈’

(직관+집 결합 신조어)

CU 직관투어 ‘#GO쏘니 챌린지’ GS25 대표팀 경기기간 치킨 할인 홈플러스 세계맥주 골라담기 행사 11번가 치킨 등 브랜드 쿠폰 기획전

‘2022 카타르 월드컵’이 개막하면서 유통업계가 모처럼 분주하다. 대규모 길거리 응원 대신 집에서 축구경기를 관람하는 ‘집관족’을 사로잡기 위해 먹거리 할인전과 다양한 프로모션을 전개하고 있는 것.

21일 업계에 따르면 CU는 유통 업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캡틴 손흥민 선수를 브랜드 모델로 기용해 우리나라 대표팀의 선전을 지원하는 ‘CHEER UP 코리아, 파이팅 SO NNY!’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CU는 이달 초부터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인 토트넘 홋스퍼 직관 투어 스탬프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해당 이벤트는 보름 동안 1만 명이 넘는 응모자들이 몰릴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당첨자 5명에게는 내년 초 토트넘의 빅매치를 관전할 수 있는 티켓, 숙박과 항공권, 스타디움 투어 등이 포함된 직관 투어 특전을 제공한다. 물가안정 기



세븐일레븐에서 모델들이 만쿠만쿠 치킨을 소개하고 있다. /코리아세븐

획전, 월클 시리즈 상품을 구매해 적립한 스태프로 이벤트에 참여(10회 중복)할 수 있다.

포켓CU와 CU SNS에서는 댓글 이벤트를 통해 11월 28일 가나전 서울, 부산, 광주 지역 CGV 상영관에서 당첨자들을 초대해 응원전도 펼친다. 해당 이벤트에는 지금까지 1만5000여명이 응모했다.

CU는 이러한 축구팬들의 성원에 힘입어 21일부터 직관 투어 2차 이벤트인 #GO쏘니 챌린지를 연이어 진행한다.

#GO쏘니 챌린지는 손흥민 선수의 시그니처 세레모니인 ‘찰칵’ 포즈를 취

하거나 공을 차는 슈팅 영상을 촬영해 #GO쏘니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 스토리나 피드에 올려 참여할 수 있다.

세븐일레븐과 GS25는 먹거리 할인 행사를 펼친다. 세븐일레븐은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경기가 열리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즉석치킨’을 40% 할인 판매한다. 후라이드치킨 한 마리 양을 절반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만쿠만쿠치킨’은 원통형 케이스안에 닭다리 부위를 튀긴 ‘점보닭다리(2개)’, ‘매콤넓적다리(2개)’, ‘점보통다리(1개)’로 구성됐다.

GS25는 윈스피리츠와 손잡고 대한민



CU에서 모델이 ‘쏘니 챌린지’ 프로모션을 소개하고 있다. /BGF리테일

국 축구팀의 선전을 지원하는 ‘윈소주 스피릿 특별 패키지’를 21일 선보인다. GS25 주류매출 1위 상품인 윈소주 스피릿의 상징성을 활용, 대한민국 축구팀의 승리에 대한 강한 염원을 표현한 특별 이벤트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윈소주 스피릿 특별 패키지는 총 3종으로 제작됐다. 윈소주 로고와 라벨을 디자인한 디자이너 남무와 합한 아티스트로 주목받고 있는 샘바이펜 작가가 패키지 디자인을 맡았다. 남무디자이너는 ‘우리는 이미 이겼다(We’ve Already WON!)’라는 슬로건을, 샘바이펜 작가는 ‘승리를 위하여, 하나를 위하여(For

the Won, To the One.)’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패키지 디자인을 진행했다.

대형마트와 이커머스에서도 월드컵 할인전이 열린다. 홈플러스는 단독으로 선보이는 신상품 ‘철판에 잘구운 메메오징어’와 ‘코주부 클래식 육포’ 2종을 오는 23일까지 마이홈플러스 멤버 대상 50% 할인 판매하고, ‘세계맥주 골라담기’ 행사도 진행한다. 하이네켄, 코젤 등 60여종에 이르는 세계맥주를 4캔 구매 시 9000원에 구매 가능하다.

11번가는 야식을 찾는 고객들을 위해 쿠폰 상품을 마련했다. 도미노피자 블락타이거 슈림프 피자, 굽네치킨 고추바사삭, BHC 후라이드+양념치킨, 롯데리아 불고기 버거 세트 등 각 브랜드 별 대표 인기 메뉴의 쿠폰을 기획전을 통해 만나볼 수 있으며, 과일·음료·스낵류 등 ‘응원간식’도 한 자리에 모았다.

업계는 이번이 월드컵 특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근 이태원 참사로 연발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경기 침체가 심화됐다”며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침체된 사회 분위기가 활기를 되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SSG닷컴, 블프 프로모션 돌입... 최대 80% 할인

무스너클 등 22FW 명품 물량 확보 ‘오늘의 블랙딜 베스트 12’ 상품 준비

SSG닷컴이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되는 11월 넷째 주에 발맞춰 글로벌 상품을 앞세운 행사를 실시한다. 대표 해외직구 상품과 매일 바뀌는 럭셔리, 글로벌 인기 상품 등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SSG닷컴은 21~27일 일주일 간 최대 80% 할인 판매하는 ‘SSG 블랙 프라이데이’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빠르고 안전한 해외직구 상품을 전면 내세운다. ‘무스너클’ ‘지방시’ ‘골로에’ ‘헨디’ ‘생로랑’ ‘오프 화이트’ ‘모스키노’ 등 22FW 명품 신상품 물량을 확보했다. ‘에스티로더’ ‘시슬리’ ‘라메르’ ‘겔랑’ ‘SK2’ 등 명품 화장품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압타밀’ ‘립 홀레’



등 베스트 분유 모음전, ‘오쏘몰’ ‘센트룸’ ‘자로우’ 등 인기 건강식품 모음전, ‘일리’ ‘바바로’ 등 캡슐 커피 모음전도 준비했다.

단 하루만 판매하는 ‘오늘의 블랙딜 베스트 12’ 상품도 준비했다. 당일 자정부터 23시 59분까지 구매 가능하며 하루 특가 상품 위주로 선보인다. 행사 첫날인 21일에는 ‘에고이스트’ 블루라벨 라인을 단독 특가에, ‘몽클레어’ 및 ‘막스마라’ 등 프리미엄 아우터를 최대 68% 할인가에, ‘하기스’ 기저귀를 1+1 특가에 판매하며, ‘허먼밀러’ ‘로레알’

‘바베과파’ ‘르크루제’ 인기 상품을 할인가에 만나볼 수 있다.

행사 둘째날인 22일에는 ‘삼성전자’ 자급제 특가, ‘티쏘’ 쥘텐트 오픈하트 단독 선출시, ‘액츠’ ‘테크’ ‘다우니’ 등 세계 1+1 특가 상품을 제안한다.

최대 80% 할인 초강력 클리어런스 상품도 있다. ‘마리끌레르’ 의류, ‘JM W’ 드라이기, ‘수아도르’ 브러쉬, ‘휴고보스’ 의류, ‘헤지스키즈’ ‘피터젠슨’ 아동 의류 등을 판매한다. 또 ‘애플’, ‘필립스’, ‘발뮤다’ 등 인기 가전 상품과 연말에 떠날 수 있는 다양한 국내 호캉스 및 해외 여행 상품, 집안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인테리어 상품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하이트진로 ‘참이슬 후레쉬’ 페트 패키지 리뉴얼

은은한 산수화 연출... 에코캡 적용

하이트진로는 참이슬 후레쉬 페트 제품의 패키지를 리뉴얼(사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패키지 리뉴얼과 함께 재활용이 용이한 에코캡을 적용해 친환경 ESG 활동도 강화한다.

이번 패키지는 기존 녹색들을 과감히 없애고 라벨 하단을 깨끗하고 은은한 산수화 느낌으로 연출했다. 모던하고 심플한 이슬방울과 서체는 유지하면서 전반적으로 자연 친화적인 이미지로 젊고 트렌디하게 리뉴얼한 것이 특징이다.

하이트진로는 패키지 변화와 함께 친환경 에코캡도 적용했다. 에코캡은 라벨 가장자리에 접착제를 도포하지 않아 손쉽게 라벨 분리가 가능해 재활용에 용이하다. 참이슬 후레쉬 뿐만 아니라



참이슬 오리지널과 진로, 담금주 페트 제품에도 에코캡을 도입한다. 라벨 부착 방식이 다른 200ml, 3600ml, 5000ml 제품은 제외됐다.

한편, 하이트진로는 지난 9월 ESG 경영을 선포하며 환경친화 선도기업으로도 약속했다 고 밝힌 바 있다. 하이트진로는 주요 브랜드 21종에 대해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아 주류 제품 중 최다 환경성적 인증을 보유 중이다.

/신원선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삼양식품-고피자 ‘짜짜로니X고피자’ 신메뉴 개발

상호협력 MOU... 국내외 ‘윈윈’ 강구

삼양식품이 1인용 피자 이름을 알린 ‘고피자’와 손잡고 고객에게 다양한 맛의 기회를 제공한다.

삼양식품은 고피자와 최근 서울 성북구 삼양식품 본사에서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삼양식품과 고피자는 업무협약을 통해 삼양식품의 짜장 라면 ‘짜짜로니’와 협업한 피자 신메뉴를 개발하고 있다.

‘짜짜로니X고피자’ 신메뉴는 22일에 출시할 예정으로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후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강구한다.

한편, 고피자는 2016년 서울 여의도 야 시장에서 푸드트럭으로 출발한 피자 프랜차이즈이다. 1인용 피자 이름을 알리며 매섭게 성장하고 있으며, 국내와 싱가포르, 인도, 홍콩, 인도네시아에서 약 16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AK홀딩스 백차현 신임 대표이사 선임

애경그룹지주회사 AK홀딩스는 전 애경자산관리 투자부문 백차현 대표이사(사진)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21일 밝혔다.



AK홀딩스 백차현 대표이사는 1992년 애경산업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28년간 애경그룹에서 근무한 애경통이다. 특히 재무 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변화관리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원선 기자

hy ‘잇츠온 셀러드’ 판매량 100만개 돌파

매출액 50억 돌파... 주요 사업군 성장

‘헬스플레저’ 문화가 확산하면서 유통전문기업 hy의 ‘잇츠온 셀러드(이하 셀러드)’ 판매량이 100만 개를 돌파했다.

hy는 셀러드 누적 판매량이 올해 1~10월 기준 120만 개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0%가량 증가한 수치다. 연말까지 150만 개 이상 판매할 것으로 예측된다. 매출액 또한 50억원을 넘어서며 주요 사업군으로 성장했다.

hy의 자체 데이터 분석 결과, 제품 관리에 신경 쓰는 하절기 셀러드 판매량은 동절기보다 40% 이상 많다. 가장

많이 팔린 품목도 ‘닭가슴살 셀러드’다. 주 구매층은 3040세대이며 10월 누적 기준 전체 주문 수량의 56%를 차지한다. 세부적으로는 30대 여성이 18%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여성이 17%로 뒤를 이었다.

런치플레이션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물가상승이 본격화된 5월 판매량은 14만 개로 자체 월 판매량 최대치를 경신했다.

‘프레시 매니저’가 원하는 장소로 무료 배송하는 방식과 구독 서비스도 경쟁력이다.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배송해 정기 구독 서비스를 많이 찾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신원선 기자